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에너지기업

남동愛

2015 September+October

vol.121





Cover Story

나뭇잎이 빨강고 노랑게 물들어갑니다. 가을을 좀 더 느끼고 싶은 마음에 들로 나가봅니다. 바람에 한들거리는 들녘의 코스모스가 너무 나도 예뻐 보여 가까이 다가가자 파란 하늘을 향해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옵니다. 한 가족이 가을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좀 더 빨리 가을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레일바이크를 타고 뽕뽕 달려갑니다. "안녕, 가을아~ 반가워!"

CONTENTS

KOSEP September+October vol.121

Special

+ 가을, 휴식타임

- 04 CHOICE Yes or No? 가을날의 힐링 Tea
- 06 INFORMATION Caffeine NO, Dessert OK
- 10 INTEREST 휴식타임, 과자를 추억하다

Knock

+ 희망의 문을

- 12 포커스 I 제39회 국가생산성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 14 포커스 II 국내 최초 풍력발전 연계 ESS 설비 준공식
- 16 포커스 III 산학연 융복합 연구사업단 개소식
- 18 포커스 IV 고졸 입사자 일·학습 병행, 사내대학 계약학과 개설·운영
- 20 초대석 영동화력발전처 탁구동호회
- 22 생생탐방 사업기술처 해외수력팀
- 26 아름다운 동행 제4회 허들링 컴퍼니 컨퍼런스
- 28 나눔 이야기 진주시와 사회공헌사업 MOU
- 30 나눔 그리고 베품

Open

+ 서로를 향해

- 32 행복사진관 관리자 이태호 차장 가족의 즐거운 주문
- 36 선배님! 반갑습니다 자연을 벗 삼은 양동천 선배
- 38 오! 해피타임 분당화력본부 박재훈 사우를 위한 이벤트
- 42 특별한 하루 더하기 여수화력발전처 사우들의 매운 찜닭 만들기
- 44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업기술처·영동화력발전처로 보내온 감사편지
- 48 행복한 속삭임 여름 휴가 사진 및 수기 콘테스트 최우수작
- 52 맛집을 부탁해 영흥화력본부 편 - 진두희집

Satisfied

+ 마음과 마음을 느끼고

- 54 모어 라이프 명품이나 귀금속 내년에 사라
- 56 헬스 가이드 추곤증과 우울증으로부터 탈출
- 58 힐링찾아 일상탈출 이스타볼
- 62 오늘은 뭐먹지 메쉬드 스윗 포테이토
- 64 책 읽어주는 오후 이민영의 《묵백, 뒤돌아보게 만드는 힘》
- 66 영화 이야기 해외 '스타 감독들' 이름값 토크, 작품도 쟁쟁
- 68 김대리의 하루 나도 집밥 김선생
- 70 조이 스퀘어 2015 진주남강 유등축제

Everytime

+ 푸른 미래를 열기 위해

- 72 함께가요 노랑사랑 노사합동 호프데이 행사
- 74 남동 투데이 경영 뉴스
- 75 남동 투데이 사업소 뉴스

Partner

+ 함께 만들어가는

- 76 생각 나누기 같은 상황 다른 생각 - 직원 편
- 77 축하해요 힘내세요
- 78 정년퇴임명단
- 79 한 장의 추억

한국남동발전(주) 사보 <남동愛> 2015년 9+10월호(vol.121)

발행인 허엽 편집인 이용재 발행처 한국남동발전(주) 기획처 편집·진행 유해준, 심주연 전화 070-8898-1348 주소 경남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홈페이지 www.kosep.co.kr 기획·취재·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글 이정미
사진 임정원(S@ram Studio)

모두의 귀감인 너에게 보낸다

분당화력본부 박재훈 사우를 위한 이벤트

분당화력본부 총무팀 재무파트 이선아 차장이 박재훈 사우를 이벤트 주인공으로 추천했다. 항상 긍정적이고 바른 마음을 지닌 사람, 회사 업무뿐 아니라 라디오 방송, 멘토링, 책모임 진행 등 사외 활동까지 똑 부러진 사람, 그래서 부럽고 본받을 만한 후배이기 때문이다.



재훈 씨!
끊임없는 열정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1



박재훈! 넌 이런 사람이다

김규열 주임 :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갑니다.

이선아 차장 : 일을 맡기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든든한 직원. 어디서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나오는지 궁금해요. 재훈 씨, 오래오래 같이 일합시다.

정의택 과장 : 당신은 컴퓨터 문제 해결사, 두루두루 도움을 주는 도우미 같은 존재입니다.

주광국 과장 : 시간을 계획적으로 활용해 업무를 철저하고 깔끔하게 해내는 것은 물론 사외 활동까지 열심히 하면서 삶을 여유롭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귀감이 되는 동료. 선배인 내게 도움을 많이 주는 기특한 후배이면서 우리 부서(파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당신입니다.



옆자리 동료로서
서로 힘이 되는
존재가 됩시다~

#2



너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지

김한상 사우 : 자동차에도 관심이 많아서 또 한 번 깜놀!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공유하며 즐거운 회사생활, 취미생활 같이하자.

남궁춘옥 대리 : 무언가 물어볼 때 귀찮아하지 않고 도와줘서 고마워.

주광국 과장 : 나 '회사 옆자리 그 아저씨'다. 날 운동시키고, 먹여주느라 수고가 많다. 항상 고맙고, 옆자리 동료로서 서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자꾸나.

장영태 사우 : 긍정적인 모습이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하네요.^^

조종민 대리 : 일도 푹 부러지고 책도 많이 읽어서 아는 것도 참 많은 재훈 씨~ 책으로 얻은 지혜를 저한테도 나눠주세요.

#3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권오균 대리 : 늘 재미나게 활기차게 회사생활하자~ 그리고 안전속도 준수하고 천천히~ㅎㅎ

김규열 주임 : 재훈 씨가 행복 전도사 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운전할 때는 조금만 살살~

이재호 사우 : 출장 때 서울-진주를 두 시간에 주파했던 경험은 인생에 다시없을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선배님의 경이로운 운전실력에 감탄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박재훈 사우 : 과거 속의 기억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거였네요. 별 의미 없이 했던 행동인데, 동료들의 기억에 남고, 추억이 되고, 의미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행동이든 조심하겠습니다.



#4



연애는 그만! 올해는 장가갑시다

유병준 차장 : 웃는 얼굴의 소유자! 일하는 모습이 멋진 재훈 씨, 일만큼 연애도 열심히 해서 올해는 장가갑시다.

이선아 차장 : 재훈 씨는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여자친구를 잊지 않더군요. 얼마 전에도 같이 밥 먹을 때 “다음에 여자친구랑 꼭 같이 와야겠다.” 하고 말했잖아요. 웬지 결혼 전부터 애처가의 느낌이 스멀스멀하네요.

박재훈 사우 : 아, 결혼... 저도 빨리하고 싶네요.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긴 한데, 여자친구가 학생이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그냥 꿈꾸는 정도? 일단은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앗싸~ 돈이닷!
지갑에 달려 넣어주는
센스쟁이~

#5



꿈을 응원하며 지갑을 선물합니다

우리 파트 막내인 재훈 씨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건 큰 기쁨이에요. 재훈 씨는 귀찮을지 모르지만... (호호) 책도 많이 읽고, 사외 활동(라디오 방송, 멘토 활동, 책모임,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는 재훈 씨를 알게 됐습니다. 신체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재훈 씨를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재훈 씨, 부럽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우리 알뜰한 재훈 씨, 돈 많이 벌고, 앞으로 좋은 일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6



더욱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게요!

김병옥 대리 : 항상 밝은 얼굴로 열심히 모습 보기 좋고, 업무도 연애도 밝고 활기차게 해나가길 바라요. 박재훈 Fighting!!!

이선아 차장 : 재훈 씨 덕분에 다 같이 둘러앉아 맛있는 케이크와 피자도 먹고, 잠깐의 티타임을 즐길 수 있어 좋았어요.

박재훈 사운 :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는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친절하게 도와주세요. 열심히 배워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Knock
+ 희망의 문을

Open
+ 서로를 향해

Satisfied
+ 마음과 마음을 느끼고

Everytime
+ 푸른 미래를 열기 위해

Partner
+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속삭임

수기 박재훈 사우(분당화력본부 총무팀)

사진 김경준 사우(삼천포화력본부 제1발전처 연료설비팀)

열심히 일한 당신, 즐겨라

여름 휴가 사진 및 수기 콘테스트 최우수작

유명한 광고 카피 중 이런 문구가 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우리 회사는 열심히 일한 임직원을 위한 GWP 기업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한 전 직원의 ‘여름 휴가 사진 및 수기 콘테스트’ 역시 GWP 기업문화 정착의 일환이다. 콘테스트 결과 최우수 작품으로 당선된 수기와 사진을 소개한다.



가족의 재발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이라면 평생 주말도 밤낮도 없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살아왔음에도 술기운이 아니고서야 살가운 말 한마디 하기도 듣기도 어려운 무뎌진 경상도 남자. 제 남편과 아들들 입을 것 먹을 것은 악착같이 챙겨도 자기 입을 것이라면 시장 좌판에 늘어놓은 만 원짜리 티셔츠 한 장 사는 것에도 한참 손을 떠는 여자. 주민 등록증에 적힌 자기 이름보다 ‘아빠’와 ‘엄마’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익숙한 두 사람,





내 부모님, 요즘은 신파극에나 나올법한 부모 캐릭터라지만, 내게는 언제나 내 곁에서 같은 역할로 영원히 살아계실 것만 같은 분들이다. 바깥에서 이런저런 모임도 많이 하고 강연도 다니며 바쁘게 산다는 아들내미는 참 많이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는데, 평생을 희생해 오늘날 부모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된 아들의 삶을 일군 노부부는 기껏해야 주말에 시간을 쪼개 사우나를 다녀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낙이 됐다.

어려서부터 항상 ‘가난’이란 수식을 뗄 수 없었던 우리 가족에게 ‘여행’이란 TV에서나 불법한 ‘엄청난 이벤트’였다. 게다가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니, 글로 배우고 그림으로 보았다지만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일지 어떤



느낌일지는 전혀 와 닿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 우리 가족이 (내 기억에 남아있는 한) 처음으로 함께 떠났던 가족여행은 내 대학 합격을 확정하고 입학할 기다리던 2004년 2월이었다. 모진 가난 끝에 큰아들을 명문대에 입학시켰다는 기쁨과 자부심에 가득했던 아버지는 가족들과 금의환향하는 개선장군처럼 고향인 경남 진주의 먼 친척들을 순회했다. 풍운의 꿈을 안고 떠난 지 20년 만에야 고개를 들고 입성한 고향이었다. 그때도 가족여행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그토록 뿌듯해 하는 것을 처음 겪기도 했거니와 항상 밥벌이에 치여 저녁 밥상머리에서나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가족들이 일주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래서일까, 우리 가족은 명절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면 여전히 그때 사진과 동영상들 돌려보며 몇 번을 이야기해도 지겹지 않다는 듯 추억을 곱씹곤 한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그리도 바쁜 것일까. 첫 가족여행이 우리에게 그토록 기쁜 추억이 되었음에도 우리 가족은 이후 단 한 번도 가족 여행을 떠나지 못했다. 2004년 이후 나는 줄곧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고, 동생은 군대를 다녀와 자취하며 독립생활을 했다. 한 달에 한두 번 부모님 댁에 찾아가 얼굴을 뵙긴 했지만, 그마저도 동생과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저녁 식사나 겨우 하고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다. 내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 오히려 늘어난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여전히 짹짹하기만 했던 경제 상황도 한몫했다.

그렇게 흐른 시간이 10년이 넘었다. 내가 남동발전예 입사한 후 아버지는 간간히 내게 “남동발전이면 아주 큰 회사인데, 거기 회사에서 콘도 같은 것 내어주는 일은 없느냐?” 하고 물으시곤 했다.



“아들 덕에 가족 여행 한번 가보자”란 말씀이 기도 했고, 평생 팍팍한 삶을 살아오신 아버지의 마음속에 조금씩 여유가 싹트고 있다는 기분 좋은 방증이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나는 입사 4년 만에 아버지 소원대로 사내 하계 체련장에 당첨돼 양평의 블루 비스타 호텔 방을 얻었다. 나는 가위바위보의 승리로 호텔을 쟁취(?)한 기쁜 소식을 의기양양 가족들에게 전했고, 부모님과 동생은 일사불란하게 일정을 조정했다. 재수도 좋았던 것이 호텔 방을 얻어놓은 8월 14일(금요일)에 휴가를 쓸 계획이었는데, 매마침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예상치 못한 행운까지 얻게 된 것이다.

11년 만에 떠난 두 번째 가족여행은 첫 여행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40대의 나이에도 혈기 왕성했던 아버지는 돌보기 없이는 신문

하나 읽을 수 없는 나이 예순의 할배가, 어머니는 흰머리가 송송한 50대 후반의 할매가 됐고, 부모님을 따라다니던 아이들은 이제 부모를 모시는 성인이 됐다.

원래 여행은 어딜 가는가보다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던가. 우리는 길이 막히는 도로 위에서도 잔잔한 음악을 배경 삼아 밀린 근황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JSA를 찍었다는 영화 촬영소도 구경하고, 팔당에서 유명하다는 초계국수도 먹고, CF에도 많이 나왔다는 카페 더그림에 가서 사진도 찍고, 양평에서 유명하다는 바비큐도 먹었다. 저녁엔 호텔 방에 짐을 풀고 양평 시내의 불링장에 가서 편을 나눠 불링도 쳤다. 뽀뽀하지만 즐거웠던 첫날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호텔 방에 둘러앉아 종일 찍은 사진을 함께 둘러보던 부모님은 “하루가 일주일 같았다”며 즐거워했다. 둘째 날 부모님은 호텔 패키지에 포함된 사우나에 다녀오셨고, 호텔 조식을 먹은 우리 가족은 팔당 세미월에 들러 만발한 연꽃과 함께 연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쌓았다.

무뚝뚝한 줄만 알았던 아버지도 여행 중엔 한결 부드럽고 자상한 남자였고, 잔순이인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도 여행 중엔 예쁜 꽃을 좋아하고 잔잔한 강가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로맨틱한 여자가였다. 부모님께서는 아들 덕에 호강했다며 즐거워하셨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존재인 줄 알면서도 생업에 치여 서로 챙기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소중한 것이었으리라. 즐거웠던 시간만큼이나 부모님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었던 이번 여행을 마치며 나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최대한 더 많은 가족 여행을 다녀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우리 가족이 평화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편안한 숙소를 마련해준 회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